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두세훈 도의원, 조례 토론회 개최... "플랫폼 노동 진입 청소년 노동자 권리보장 등 조례에 담아야" 의견 제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원주2·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두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근로환경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두 의원은 "플랫폼 노동보다 조금 일찍 실습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산업현장에서 경계 활동을 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미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토론회에서 이준상 민주노동당 전북본부 조부장은 "재학 청소년 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행방안 모색과 시민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민 전북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으로 진입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지대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수 전북도 노사협력팀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플랫폼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물론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구제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상위법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세훈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주요쟁점인 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체민 전북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으로 진입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지대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활동을 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미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토론회에서 이준상 민주노동당 전북본부 조부장은 "재학 청소년 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행방안 모색과 시민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민 전북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으로 진입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지대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수 전북도 노사협력팀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플랫폼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물론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구제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상위법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세훈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주요쟁점인 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금마축구공원 경기장 추가 조성 확정

최영규 도의원 주관 간담회 계기로 기관 간 뜻 모아

총 사업비 25억 원 규모의 '금마축구공원 내 제3구장 신설'이 확정됐다. 이번 제3구장 신설은 전북도와 도 교육청, 익산시가 적극적인 협업체를 통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할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전북도는 도가 자율배정할 수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금마축구공원 제3구장 신설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유소년축구장을 신설하고자 했던 도 교육청도 대응투자에서 나섰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에, 익산시 자체 재정으로는 버거웠던 3구장 신설사업이 도와 도 교육청의 공동 대응으로 성사될 수 있었으며, 익산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익산시 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최영규 의원은 "제3구장 신설은 각 관계기관이 수평적 소통을 통해 일궈낸 행정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금마축구공원을 축구종목에 특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익산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마축구공원 내 제3구장 신설 사업은 내년 초 중으로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금마축구공원 내 제3구장 신설 사업은 내년 초 중으로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도, 소방공무원 법무분야 경력자 채용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북도가 소방공무원 법무분야 경력자를 채용한다.

이번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경제 응시는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은 없다.

시험절차는 서류와 신체검사, 인·적성검사를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서류에서는 직무수행 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며,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사한다.

신체검사 종료 후 인·적성검사가 이어지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면접시험은 집단과 개별면접으로 이뤄지며, 직무수행 능력 및 발전성,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원서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한 인터넷접수(https://lora.lgs.go.kr)만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및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하 민주당 청년위원장 당대표 1급 포상 수상받아



이정하 민주당 청년위원장 당대표 1급 포상 수상받아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이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에 이어, 제86주년 더불어민주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정하 청년위원장의 이번 수상은 전국청년위 조강특위 위원장을 겸직하며 조직강화는 물론 도당청년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정책협의를 통해 청년들의 관심과 정책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이정하 위원장은 "이렇게 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청년 동지님들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내년이 있을 대선 승리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청년들의 고단한 삶에 희망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우수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29일까지 만 24세 이하

전북도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청소년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2021 전북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의 우수 청소년 자원봉사자 응모 자격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만 9세에서 만 24세의 청소년 개인 또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전북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과 전북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오는 29일까지 우편(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84, 2층 전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이메일(jb479@hanmail.net)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인내는 전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www.jb479.or.kr) 공지사항이나 전화(063-232-0479)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하 민주당 청년위원장 당대표 1급 포상 수상받아



연설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 연설회가 열린 26일 우석대학교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스타리아·펠리세이드 물량 전주공장 이관"을

송지용 도의장, 전주공장 물량 부족 해결 위해 촉구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원주1)은 지난 2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물량 부족 해결을 위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와 펠리세이드' 물량의 전주공장 이관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전주공장 물량 정상화를 위한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송 의장과 현대차에 따르면,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 상용차 공장인 연간 60대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작년에는 3만6,000대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전주공장 가동이 멈춰서고, 일부 직원은 타사로 전출하거나 전환 배치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타리아' 라인을 전주공장으로 이관하고 펠리세이드를 추가 생산하고자 노조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울산공장 노조는 스타리아 이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미국 수출을 위해 증산이 필요한 펠리세이드

2만대 물량만 전주공장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투자 비용과 공사 기간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송지용 의장은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우 수년째 물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지만, 상용차시장 수요 한계로 꾸준한 물과가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불안은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사는 물론 노노간 상생 방안으로 울산에서 생산 중인 스타리아와 펠리세이드 생산 설비를 전주공장에 갖춰 물량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전주공장 물량 정상화를 위한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정의 시대 열 실력자"

김제시 미래발전포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

김제시소재 미래발전포럼회원 1,00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5시 포럼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임종성(경기도 광주 재선)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을 대표해 손삼국(전 김제시장) 포럼 대표회장이 발표한 이재명 후보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추진력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진영을 하나로 묶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리더십과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의 시대, 전환적 공정성장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실력자"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시대정신을 공공국가건설로 규정하고 양극화 구도를 청산하고 민생경제 기반위에 함께

발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후보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의 공약이탈로 새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평가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데 있어 자유, 평화,민족대단결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가진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공명포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은 "이재명 후보는 상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직무수행능력으로 인정받은 검증된 인물로 급속도로 변화되는 국제환경에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행사는 최소인원만 참석 소규모로 치러졌다.

열린캠프 호남정책특보로 백순기 전 전주시 완산구청장 임명

백순기 전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지난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이어, 9월 15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경선후보 경선대책위원회 호남정책특보로 임명됐다.

백순기 전 구청장은 40년간의 지방자치 행정에 근무해왔고, 실무에서 기획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개발의 책임자로 인정받아 이재명 열

린캠프의 호남정책특보로 임명됐다는 평이다.

백순기 전 구청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이재명 후보의 삶이 나의 삶과 비슷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호남정책특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 나아가 정권재창출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가시적 성과 내도록 최선"

한완수 도의원, 민주 균형발전특위 위원에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데 이어, 지난 18일 제 86주년 더불어민주당 창당 기념일을 맞이해 당대표 1급 포상까지 수상했다.

그간 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중장기 도로망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노력해왔다.

또한 1급 포상은 평소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들의 말을 듣고 대변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왔고, 당원들과도 수많은 대화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당의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물로 보여진다.

한완수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가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포상을 받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망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완수 의원은 임실군수에 출마 예정인 가운데 임실군의회의장,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